

최승호

쉽게 가는 행정학 강의계획서

[예비순환 핵심 미션 : “기본서”(예비) - “중요도”(순환)]

-행정학 주요 이론을 통한 기본 잡기-

1. 행정학, 기본서가 없어 많이 ~ 당황하셨지요?

: 행정학 기본서, 만들어 드립니다!

2. 순환, 무슨 의미인지 진짜 ~ 궁금하지 않으세요?

: 순환의 전개는 진도나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가 기준입니다!

3. 행정학, 이차 과목의 플랫폼 과목인거 ~ 아세요?

: 과목 간 연결성을 고려한 공부,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!

■ ■ 담 당 최 승 호

■ ■ 강의일정 2019년 5/29(수) ~ 6/20(목), 총 20회

■ ■ 시 간 [오후 실강반] 1:40 ~ 5:20

■ ■ 강의교재 ▶주교재 쉽게 가는 행정학 기본편-이론(제본집, 실비제공)

※ 기출문제 패턴분석을 통해 무엇을,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참 멋진 단권화 교재

※ 행정학의 기본서와 참고서의 핵심 내용만을 시험에 적합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 좋은 교재

▶부교재 한국행정학 제6판(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음, 박영사)

■ ■ 강의특징 / 강의목표 예비순환은 한마디로 수험 행정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과정이므로, ‘기출문제 패턴분석’을 통해 수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. 예비순환 수업을 통해 방대한 행정학의 내용을 여과해서 이론적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기본 내용의 정리집 즉 ‘기본서’를 만드는 것이 본 강의의 특징입니다.

구체적으로 본 강의는 ▶행정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시대사·개념사적 분석 ▶한국 행정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틀 정립 ▶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수험 행정학 주요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▶한국 행정의 주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학적 마인드 배양 등을 목표로 합니다.

- [공부방법, 합격수기]
1. 합격생 송00 : 행정학, 정치학, 정책학은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. 최승호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**과목들의 특성상 'the answer'가 아니라 'an answer'를 요구하고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**입니다.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, 최승호 선생님의 교수방식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선은 배부된 자료를 한 번 읽고, 당일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공부를 했습니다. 선생님의 특이한 필기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복습이 너무 금방 끝나는 것에 당혹스러웠는데, 이 경우에는 필기 내용을 이루는 논문을 함께 같이 읽으면 좋았습니다. 제 경우 **1년차 2순환에 이르러서야 방식이 익숙해졌는데, 이때부터는 선생님 필기를 각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'최소한으로 최대한을 쓰기 위한 공부'를** 했습니다. 즉, 각 개념별로 의의와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, **다수의 개념을 아우르는 거시 또는 중범위의 개념을 파악하고, 그 내용을 통해 보다 미시적인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해내는 것을 목표로** 했습니다. 이를 통해 논문 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고,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.
 2. 합격생 박00 :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구별되는 정치학의 특징은 **이해보다는 훈련과정**이 더욱 어려운 과목이라는 점이다. 시험공부는 일단 과목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해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.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학과 행정법 두 과목은 **훈련보다는 이해가 어려운 과목**에 속한다.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일단 이해한 후에는 답안을 정해진 방식대로 쓸 수 있어 답안 작성이 비교적 수월하다. 그러나 정치학과 같은 논문과목들은 반대로 **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답안을 쓰는 것이 어려운 과목**이다. 문제가 질문하는 방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은 하지만 비교적 넓은 틀 안에서 답안이 재량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러한 과목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**무조건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서 깊고 널리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읽은 내용을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**이라 생각한다. 선천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, 훈련의 과정은 필수적이다. **나 역시 글쓰기에 크게 소질 있는 편이 아니어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연습**해야 했다.

- [수업시작 전 OT]
- 5월 29일 오전 10시에서 12시 까지 “까칠승호쌤의 멘토링 특강 3-‘행정학’이라고 쓰고 ‘융합학문’이라고 읽는다!”가 진행됩니다. 상세한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의 공지를 확인하시고, **제 행정학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** 중요한 강의니까 꼭 참석하세요.
1. 한림법학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 무료특강란에 “까칠승호쌤의 멘토링 특강 1”을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행정고시 공부방법론을 잡으시는데 정말 ~ 도움이 됩니다.
 2. 수업 참석 후 개별 상담을 신청(구체적인 일정은 수험생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)하고, “까칠승호쌤의 멘토링반(본 강사가 직접 수험 전체 일정을 관리해주는 특별반)”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

진도별 강의내용(진도별 핵심논점)

| 강의회차 | 날짜 | 강의 내용(※단일 주제가 아닌 복합 주제)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제 1 회 | 5월 29일(수) | 행정학 mapping 들어가기 |
| ■ 제 2 회 | 5월 30일(목) | 정부관 1(정부관의 다양성) |
| ■ 제 3 회 | 5월 31일(금) | 정부관 2(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-정부실패와 시장실패) |
| ■ 제 4 회 | 6월 1일(토) | 행정과 경영 1(신관리주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) |
| ■ 제 5 회 | 6월 3일(월) | 행정과 경영 2(전략적 관리와 성과관리를 중심으로) |
| ■ 제 6 회 | 6월 4일(화) | 행정과 정치의 관계(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관계를 중심으로) |
| ■ 제 7 회 | 6월 5일(수) | 행정의 분석 틀 1, 행정학의 접근방법 개관 |
| ■ 제 8 회 | 6월 6일(목) | 행정의 분석 틀 2,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|
| ■ 제 9 회 | 6월 7일(금) | 행정이념 |
| ■ 제 10 회 | 6월 8일(토) | 행정문화 및 윤리 |
| ■ 제 11 회 | 6월 10일(월) | 정부개입방식 1(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 논의를 중심으로) |
| ■ 제 12 회 | 6월 11일(화) | 정부개입방식 2(민영화, 민간위탁, 책임운영기관, 규제를 중심으로) |
| ■ 제 13 회 | 6월 12일(수) | 조직인과 관리전략 |
| ■ 제 14 회 | 6월 13일(목) | 조직구조 |
| ■ 제 15 회 | 6월 14일(금) | 공직형성구조 |
| ■ 제 16 회 | 6월 15일(토) | 인적자원관리의 틀 |
| ■ 제 17 회 | 6월 17일(월) | 재정의 기본 틀 |
| ■ 제 18 회 | 6월 18일(화) | 예산제도와 과정 |
| ■ 제 19 회 | 6월 19일(수) | 행정갈등론 |
| ■ 제 20 회 | 6월 20일(목) | 행정학 mapping 나가기 |

※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